

성 명 : 윤 혜 경

생년월일 : 1967. 3. 14

현 직 : 춘천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교수



학 력

1986.3~1991.2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이학사
1991.3~1993.2 서울대학교 대학원 과학교육과 교육학 석사
1993.3~1999.2 서울대학교 대학원 과학교육과 교육학 박사

경 력

1991.10~2000.4 중학교 과학 교사
2000.4~2003.2 한국과학문화재단(현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원
2003.3~현재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학회 관련 활동

2003.3~2005.2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 편집간사
2005.3~2007.2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 편집위원
2008.3~2010.2 한국과학교육학회 편집위원
2011.3~2012.2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 학술이사
2011.3~현재 한국과학교육학회 이사,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 이사
2020.3~2021.2 한국과학교육학회 학술위원장
2021.3~현재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 편집위원장, 부회장
2023.3~현재 한국물리학회 새물리 편집위원
한국물리학회 물리교육분과 위원장
2023.3~현재 한국과학교육학회 부회장

◁ 이런 학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

저는 21대 한국과학교육학회 회장에 입후보한 춘천교육대학교 윤혜경입니다. 개인적 역량은 부족하지만 여러 회원님의 힘과 지혜를 모아 우리 한국과학교육회가 과학교육 연구와 실천의 허브로 그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다짐으로 학회를 이끌어보고자 합니다.

1. 학문적 수월성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우리 학회는 국문 학술지 ‘한국과학교육학회지’를 연 6회 발행하고 있으며 영문 학술지 ‘APSE(Asia-Pacific Journal of Science Education)’를 2015년부터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교육학회지는 발행되기 시작한 지 44년이 되어가는, 국내 최초의 과학교육 학술지이며 그동안 우리나라 과학교육 연구를 선도해 온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교육 학술지라 자부합니다. APSE는 SCOPUS, ESCI에 등재되어 국제적으로 그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우수한 과학교육 연구 결과가 우리 학회의 학술지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발행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학술지의 형식과 운영 방식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2. 학회원 간의 협력과 소통,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학회는 연 2회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신진 연구자와 중견 연구자가 만나고 서로의 연구 성과를 확산하며, 교사와 연구자가 현안을 토론하고, 타 분야 전문가, 과학교육 관련 기관과 협업을 위한 장이 되어 왔습니다. 학술대회를 통해서 학회원 간의 협력과 소통에 힘쓸 뿐 아니라 정기적인 소식지 발행 등을 통해서 이러한 노력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학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과학교육 관련 기관과 오래전부터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좀 더 다양한 단체나 기관, 국내외 기관과 네트워크를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관 단체와의 공동세미나, 학술대회, 협력 연구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하겠습니다.

3. 학교 내, 학교 밖 과학교육 현장의 도전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학령 연구의 감소, 급격한 기술 발전과 디지털화, 다문화성,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문제 등 현대 사회의 변화는 학교 내, 학교 밖 과학교육 현장에도 많은 도전과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과학교육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담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내, 학교 밖 과학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과학교육 현장의 도전이 학회의 담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사회적 책임과 공공이익을 위한 학회 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과학교육학회는 우리나라의 과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있으며 과학교육 연구와 실천을 통해 공공의 이익과 사회발전에 공헌해야 합니다. 과학교육의 다양한 현황과 데이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과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제안을 제안하는 것도 이러한 활동 중 하나일 것이며 지역사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과학교육, 다양성을 포용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는 과학교육 활동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다짐을 가지고 여러 회원님과 더불어, 함께 더 멋진 한국과학교육 학회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3. 12.
윤혜경 드림